

건축자재도 웰빙 강조해야 통한다!

특허청, 2004년 상반기 상표출원 급증 ... 삶의 질 강조한 마케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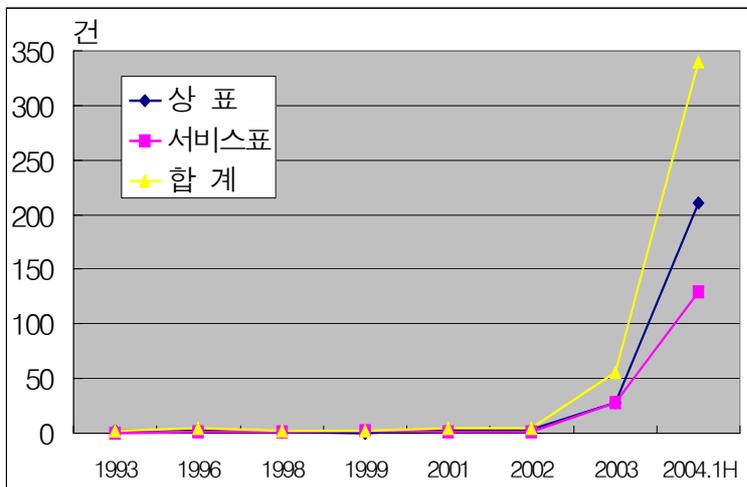
최근 웰빙(Well-Being) 열풍이 불면서 웰빙과 관련해 서비스표를 포함한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화장품 등에 이어 벽지나 바닥재, 냉장고나 에어컨디셔너, 아파트에도 웰빙이 붐몰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3년에 2건이 출원된 이래 2001년, 2002년에도 각 4건에 불과하던 웰빙 관련 상표출원은 2003년 56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4년 들어 1-6월 사이 34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상표출원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 농축산물과 차, 음료 등 건강식품이 80건으로 전체 웰빙 관련 상표출원 251건의 31.8%를 차지했다.

웰빙상표 출원현황



의약품·화장품류가 40건으로 16.0%, 기능성 가전제품이 37건으로 14.7%를 나타냈으며, 가구·건축재료는 20건으로 7.9%, 직물·의류도 16건, 6.4%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표 출원은 전체 163건 중 주5일 근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식업, 숙박업이 34건으로 22.7%를 차지했고 광고·유통업이 35건으로 21.5%, 의료·이미용업이 25건으로 15.3%, 금융·보험이 19건으로 11.7% 등으로 나타났다.

웰빙 상표출원이 급증하게 된 것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건강식품, 기능성 가전제품 및 요식업 등 관련상품이 내수부진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미래산업을 주도할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웰빙상표 출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웰빙상표의 주요상품 및 서비스업 출원현황

(단위: 건, %)

상표	전체	농축수산물	과자/차/음료	의약품/의료기	화장품/세제	가전/냉난방기구	기계/기구	가구/건축재료	직물/의류	인쇄물/문방구	기타
	251	42	38	22	18	37	18	20	16	12	28
비중	16.7	15.1	8.8	7.2	14.7	7.2	7.9	6.4	4.8	11.2	
서비스표	전체	광고업/유통업	금융/보험	건설/수선업	통신/방송업	여행/오락업	산업분석/연구업	요식/숙박업	의료/이미용업	기타	
	163	35	19	16	3	14	11	37	25	3	
비중	21.5	11.7	9.8	1.8	8.6	6.8	22.7	15.3	1.8		

특허청 관계자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웰빙이라는 명칭을 들어간 상표를 출원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으며 주5일 근무제 등이 본격 시작되면 웰빙 상표출원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03>